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취재 정보 자료

1. 선수 프로필

	종 목	사격	세부 종목	속사권총	
	성 명	이건혁 (영문 : Lee Gunhyeok) (한문: 李建奕)			
	소 속	대구시설공단			
	출생년도	1999	성별	남	
	출생사도	서울특별시			
	학력	중학교		선유중학교	
		고등학교		환일고등학교	
		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2. 국제대회 참가성적 및 세계랭킹

국제대회 참가성적 (2022-2026년)	• 2022년 ISSF 카이로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금메달 •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대회 단체전 은메달 • 2023년 ISSF 창원 아시아선수권대회 개인전 금메달 • 2023년 ISSF 바쿠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동메달 • 2025년 ISSF 카이로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
세계랭킹(제출일 기준)	• 11위

3. 스토리텔링 자료

1. 2026 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 목표와 출전 각오는 무엇인가요?
속사권총을 처음 시작한 17살 때부터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아시안게임도 금메달이 목표입니다. 평소 하던대로 후회없이 저의 사격 보여주겠습니다.
2. 해당 종목의 선수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와 시작 연령은?
어렸을 때부터 비비탄사격장 가서 총쏘는 걸 좋아했는데 꽤 잘 쏘아서 가족들이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지인 중에 사격을 하셨던 분이 계셔서 어머니의 권유로 중학교 2학년 때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잡았던 총이 10m 공기권총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25m 속사권총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흥미를 느끼고 적성에 맞다고 느껴서 세계최고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 경기 전 나만의 루틴 또는 징크스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징크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민한 종목인 사격특성상 없다가도 어느 순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 안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노력하다보면 징크스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는 음악을 듣거나 기분 좋은 상상을 하려고 하고 또 눈이 편안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초록색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4. 선수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창원에서 열렸던 2018년 세계선수권과 2023년 아시아선수권대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2018년 창원세계선수권에서 대중들의 주목과 응원을 처음 느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5. 선수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과 이를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선발전 때마다 힘들었던 순간이 많았고 간절하게 임했지만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고 느낀 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내려놓는 것이 정답에 가까웠습니다. 결과에 대한 욕심보다는 총을 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낄 때 경기력과 성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6. 선수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가족, 지도자, 멘토 등) 그 이유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수로서 성장하는데 좋은 영향을 받았지만 아빠는 나에게 운동선수로서의 승부욕과 열정, 동시에 겸손함을 가르쳐주셨다. 항상 겸손하라고 너무 그러셔서 힘들때도 많았지만.....(농담) 엄마는 나에게 선수이기 전에 사람으로서의 인성을 강조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도록 키워주셔서 두분 모두 너무 과분하게 감사합니다.
7. 운동 외에 즐기는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축구와 게임을 좋아합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경기력 유지와 건강을 위해 런닝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8. 본인만의 특별한 이야기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부상 극복, 학업·직장 병행, 가족 이야기, 국가대표 선발 과정 등)
고등학교 1학년 때 체력훈련 도중에 부상으로 쇄골이 부러져서 사격을 그만둬야하나 생각했습니다. 순간 걱정과 불안함에 휩싸여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고 2달 가까이 입원과 재활 치료 후에 다시 사선에 복귀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선수배들 쉴 때 혼자서 훈련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치료 후 복귀해서 3달 뒤 대회에서 난생 처음으로 개인전 금메달을 따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9. 앞으로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은가요?
사람들에게 이견혁 하면 '아~ 그 사격선수~ 총 엄청 잘쏘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만 되어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10. 나만의 좌우명 또는 철학이 있나요?
근자감(근거없는자신감)을 가지자. 특히 운동선수라면 근거있는 자신감보다는 근거없는 자신감이 필요할 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1. 인생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선수/지인이 있나요?
인생의 라이벌은 나 자신입니다.
12.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작성해 주세요.
사격하면 또 메달 많이 따오는 효자종목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시고 기대해주는 만큼 꼭 금메달 따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